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창립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및 한국공업화학회는 각 학회의 독자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 화학계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를 창립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7월 1일(목) 오후 5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나라 화학계의 본격적인 역사는 1946년 7월 27일에 창립된 “조선화학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창립 당시의 조선화학회는 순수화학 뿐만 아니라 공업화학, 농예화학, 약학, 의학 등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범화학적 조직이었고, 1949년 “대한화학회”로 개칭한 후에도 순수화학은 물론 화학공학과 공업화학 분야의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학술지 발간은 물론 학술대회의 개최, 화학술어의 제정과 초록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우리 사회에 급격한 전문화가 시작되면서 순수화학과 응용화학의 독립된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62년에 “한국화학공학회”가 독립하여 창립되었다. 그 후 1977년에는 한국고분자학회, 1990년에는 한국공업화학회가 창립 또는 분리 독립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창립된 한국분석과학회와 한국전기화학회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회들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독립된 영역에서 우리나라 학회의 모범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화학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화학분야의 학회가 분리되기는 하였지만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는 공동의 노력으로 1970년에 “화학회관”을 건립하였고, 1990년대 초까지 대한화학회의 회장직을 순수화학과 응용화학 분야에서 번갈아 맡는 등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유지되었으며, 4개 학회가 함께 “신년하례식”을 개최하는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화된 학회 활동의 장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글로벌화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를 눈앞에 두고 이제는 전문화된 세부 학문 분야 사이의 다학제적 협력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고도로 발전한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서 화학 분야의 독자적이고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관련 분야의 학회가 서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되었다.

화학 분야의 4개 학회장들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7년 여러 차례의 만남을 거쳐 “화학관련학회연합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6회의 학회장 및 실무진의 모임을 가졌고, 1999년 1월 21일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창립 작업에 착수하였다.

1998년 2월 6일의 회장단 모임에서는 6개의 기본 사항에 합의하였으며, 3월 18일에는 10개 사항에 합의하였다(화학세계 38권(1998년) 4호 85면 참조). 이러한 합의와 화학회관의 재정 지원으로 1998년 12월에는 4개 학회 회원들의 정보를 수록한 인명록을 발간하여 각 학회 평의원 약 750명에게 배부하고 CD로도 제작하여 각 학회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원 연구력 증강 사업>에 대한 화학계의 입장문을 정리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하였다(화학세계 39권(1999년) 3호 75면 참조).

1999년 1월 21일에 개최된 4개 학회장 및 실무위원 합동 모임에서 손연수 대한화학회 전회장, 이대운 현회장, 정봉영 현부회장, 이화영 한국화학공학회 전회장, 한형수 현회장, 김재진 현총무이사, 이후성 한국고분자학회 전회장, 성용길 현회장, 김낙중 현전무이사, 남종우 한국공업화학회 현회장, 이윤식 전전무이사, 이철태 현총무이사 등 12명을 화학관련학회연합회(가칭)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확정하고 손연수를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장차 결성되는 연합회가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준비위원장

이 연합회의 정관 초안을 작성하여 추후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 2월 18일 제1회 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하고 이 모임에서 연합회의 명칭을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로 결정하였다. 또한 준비위원장이 초안한 정관(안)을 심의한 후 이를 4개 학회 이사회에서 각각 심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 회원 학회에서 연합회 이사 후보 3인(현회장 포함) 및 감사 후보 1인씩을 추천받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 5월 6일 개최된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연합회 정관(안)을 확정하였으며 각 학회에서 추천된 12명으로 창립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또한 전민제 한국화학회관 이사장을 범학회 차원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민제 이사장이 초대 회장직을 고사하였기 때문에 1999년 6월 1일 개최된 제3차 준비위원회에서 김시중 전과학기술처장관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1999년 7월 1일 개최된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창립 이사회에서 손연수 임시 의장의 사회로 연합회 정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초대 회장에 김시중 전과학기술처장관을 선출하였다. 김시중 회장의 주재하에 이화영 한국화학공학회 전회장(서울대)과 이주성 한국공업화학회 전회장(한양대)을 감사로 선출하였으며 전민제 한국화학회관 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1999년 11월 11일에 <화학 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준비위원장으로 남종우 연합회 부회장을 선출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위임하였다. 또한 정관에 의거하여 각 회원 학회의 현회장이 자동적으로 연합회 부회장이 되었으며 전문위원회로 총무·재정, 기획·홍보, 산학협력, 학술·출판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4명의 부회장이 각각 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총무·재정은 불문율로 항상 회장 출신 학회장이 맡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금년에는 이대운 대한화학회 회장) 기획·홍보는 성용길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이, 산학협력은 한형수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이, 학술·출판은 남종우 한국공업화학회 회장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각 위원장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당분간 2주에 한번씩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회무를 조정키로 하였다.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초대 임원진,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임기: 1999년 12월 31일까지) 및 실무위원회인 창립기념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임기: 한시적)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 원

- 회 장 : 김시중(전과학기술처장관)
- 부 회 장 : 이대운(대한화학회 현회장, 연세대), 한형수(한국화학공학회 현회장, (주)새한), 성용길(한국고분자학회 현회장, 동국대), 남종우(한국공업화학회 현회장, 인하대)
- 이 사 : 손연수(대한화학회 전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봉영(대한화학회 현부회장, 고려대), 박원훈(한국화학공학회 차기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재진(한국화학공학회 현총무이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광웅(한국고분자학회 차기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낙중(한국고분자학회 현전무이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윤식(한국공업화학회 전전무이사, 서울대), 이철태(한국공업화학회 현총무이사, 단국대)
- 감 사 : 이주성(한국공업화학회 전회장, 한양대), 이화영(한국화학공학회 전회장, 서울대)

전문위원회

<총무·재정 위원회>

- 위 원 장 : 이대운
- 부위원장 : 박준우(대한화학회 총무부회장, 이화여대)
- 위 원 : 홍성안(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낙중, 최순자(한국공업화학회, 인하대)

〈기획·홍보 위원회〉

- 위 원 장 : 성용길
- 부위원장 : 최철림(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위 원 : 이영식(대한화학회, 경희대), 이재욱(한국화학공학회, 서강대), 서동학(한국공업화학회, 한양대)

〈산학협력 위원회〉

- 위 원 장 : 한형수
- 부위원장 : 박원훈
- 위 원 : 김동진(대한화학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진칠(한국고분자학회, 포항공대), 장정식(한국공업화학회, 서울대)

〈학술·출판 위원회〉

- 위 원 장 : 남종우
- 부위원장 : 이윤식
- 위 원 : 장호겸(대한화학회, 고려대), 김성현(한국화학공학회, 고려대), 김우식(한국고분자학회, 경북대)

실무위원회

〈창립기념행사 준비위원회〉

- 위 원 장 : 남종우
- 부위원장 : 정봉영
- 위 원 : 김영관(대한화학회, 홍익대), 박오옥(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진, 김광웅, 김성철(한국과학기술원), 이철태